

고려사인 權近·權遇의 詞 역주

이 태 형*

<目次>

I. 서론

II. 權近의 詞 역주

III. 權遇의 詞 역주

I. 서론

최근 중국의 ‘고서공정(古書工程)’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문화 고유성 확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중국과 대만의 한국 고전자료 영인본 출간 현황을 나열해보면, 《역외한적진본문고(域外漢籍珍本文庫): 제1집-경부(經部)(전4책)》, 《역외한적진본문고(域外漢籍珍本文庫): 제1집-사부(史部)(전4책)》, 《역외한적진본문고(域外漢籍珍本文庫): 제1집-자부(子部)(전5책)》, 《역외한적진본문고(域外漢籍珍本文庫): 제1집-집부(集部)(전5책)》, 《(中山大學圖書館藏)역외한적진본총간(域外漢籍珍本叢刊)(전20책)》, 《(韓國成均館大學尊經閣藏)한적진본총간(漢籍珍本叢刊)(전16책)》, 《(北京大學圖書館藏)조선판한적선본취편(朝鮮版漢籍善本萃編)(전10책)》, 《역외한적연구집간(전17책):域外漢籍研究集刊[集部]《韩国文集中的清代史料》(전17책)》, 《韓國文集中的蒙元史料(전2책)》, 《韓國歷代文集目錄索引》 등이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에서는 한국의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의 각 대학교에 소장된 한국 고전 원문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

* 한국고전번역원 선임급 직원

하거나 무단 편집하여 영인본으로 출간된 서적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인본은 중국·대만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자에게 막대한 연구지원비를 지원하여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전을 탈취하여 중국의 것으로 삼는 제2의 동북공정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수많은 《域外漢籍》이 한국 한문 고전에 포함되어 한국의 문학과 역사가 중국의 아류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현재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인 한국고전콘텐츠가 중화권으로 무단 유출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유관기관, 학계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詞작품은 漢文學의 韻文 중 漢詩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詞가 高麗와 朝鮮의 새로운 體裁의 문학 장르, 예를 들면 佛歌의 歌頌, 小樂府, 別曲, 時調, 歌辭, 漢文小說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한다면, 漢文學에 있어서의 詞文學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다. 한국 사문학 연구는 장르적으로 한국 한문학 범주에 포함되지만 한문학 연구자들은 애초부터 사라는 문체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사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역대로 한국문인들의 詞體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벽된 인식, 문체 분류에서 기인한 장르적인 혼란, 특히 詞牌나 詞律 등 음악적 형식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한국사 관련 연구는 작가론, 작품론, 중국사와의 비교 연구 등 단편적인 경향을 가진다.

한국 사문학 관련한 국내외의 기존 선행연구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문학 발굴 작업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주환이 최초로 한국사 자료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1964년부터 1965년까지 고려대 《아세아연구》 제15~20집에 <한국사문학연구-자료정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 논문을 실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사 작가 41명의 89조 421수의 사작품을 수집·정리했다. 이 연구는 한국사 문헌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류기수 교수는 2006년

<韓國詞의 原資料에 관한 고찰>(《중국학연구》제37권)을 발표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古籍 자료 《韓國文集叢刊》正編(1~90冊까지) 조사를 통해 《历代韩国词丛集》(한신대출판부, 2006년)을 편찬했다. 이 책에서 고려, 조선 시기 사인 171명의 사작 1,250수를 발굴하였고, 《历代韩国词丛集》의 보완 수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2년 발표한 <历代韩国词丛集·补正记>(《민족문화》, 제39집, 2012년)에서 류기수는 《历代韩国词丛集》正編(91~110冊까지)의 오류를 바로잡고, 누락된 작품 21수를 보완했으며, 새로 발견한 113명 사인의 사작 650수를 정리했다. 이밖에도, 2012년에 발표한 <<詞話叢編>에 실린 韓國詞 자료 고찰>(《중국학연구》제59집, 중국학연구회, 2012.)에서는 중국역대사화집에서 가치있는 한국사 자료를 찾기도 했다. 2013년에는 기존 오류를 수정하고, 5수의 작품을 보완, 소개되지 않은 사인 55명과 사작 195수를 정리한 <中国詞의 受容과 創作—새로 발견된 高麗·朝鮮詞를 中心으로>(《중국학연구》 제65집, 2013.) 논문을 발표하여, 총 2,121수를 발굴했다. 류기수 교수는 2006년에 출판한 《历代韩国词丛集》(한신대출판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통해 최근 중국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全高麗朝鮮詞》(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9.)를 출간했다. 그는 여기에서 총171명의 사작가와 1,250수의 사작품을 추가로 발굴하여 실었다. 현재까지 고려와 조선시대 한국사인은 총350명의 사작가가 있고, 총2072수의 사작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한국의 사문학 연구는 주로 중문학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차주환을 필두로 지영재, 백정희, 류기수, 송용준, 류종목 등의 연구자가 한국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차주환 교수는 한국사 작가와 작품, 돈항사, 한국사 영역에서의 대량의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사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했고, 중국학자들에게는 중국사의 한국 전파와 수용, 영향과 창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최근 중국에서의 한국사 연구는 연변대학 李寶龍 교수와 상해 화동사범대학의 楊焜 교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 성격의 단행본 출판은 아직 부족한 편이고, 주로 작가와 작품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초기

에는 고려시대 이규보, 이세현, 이곡, 정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중국 사문학에 대한 고려 사인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셋째, 한중사 비교와 한국에서의 수용양상에 관한 최근 연구 경향은 기존의 단방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매개연구, 문화학적 연구 등 다양한 시각으로 한중사를 조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한국 사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중문학과 한문학 연구자들의 활발한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사 발굴 정리의 문헌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에서 사와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등 다른 문학 장르와의 영향 관련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와 고려가요 관련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김창원(<《高麗史》<樂志>에 나타난 三國~高麗歌謠의 相>, 《고전과 해석》 제10권, 2011.), 최미정(<고려 궁중악의 국어가요와 한자시가- 고려의 향악·아악에 대한 연구의 고찰->, 《大東漢文學》 20집, 2004.), 박경주(<詩歌文學史에서 漢文詩歌의 위상과 의미-궁중 악제의 흐름과 관련하여>, 《한국한시연구》 16집, 2008.) 등이 있다.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구어로 퍼진 가요의 일종으로, 대개 대중 구전, 후렴구, 시의 음절으로 구성된다. 고려가요는 한글 창제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널리 전파되지 않았고, 후세에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아 대부분 소실되었다. 가사의 내용은 “남녀상여지사”로 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한 것이 많다. 사의 내용은 ‘艷科’, ‘側艷’ 등 인륜 도덕에 위배된다고 여겨져 배척을 받았다. 사와 고려가요의 영향 관계에서 볼 때, 고려가요는 사가 가진 어떠한 역할을 대체하는 기능을 가졌을 수도 있다. 고려가요는 어떠한 사를 대체하는 기능을 가졌을 수도 있다.

사와 경기체가 관련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이경백(安軸의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송사(宋詞)의 비교연구를 통한 경기체가(景幾體歌)의 형성과정(形成過程) 연구>, 《한문고전연구》 31권, 2015.12.), 변유유(<한림별곡에 미친 송사의 영향>, 《한민족어문학》, 2009.12.) 등이 있다. 경기체가는

竹林高會의 문학 이후 고려 중엽 고종 때 새로운 詩體로 출현했다. 고려 문인들은 자신의 사상 감정을 경기체가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중국어(한자)와 한국어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한국어 詩歌 형식이 바로 경기체가이다. 경기체가는 그 창작과 소비계층이 모두 한학자라 특수성이 있으며, 이러한 시가 양식을 사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기체가는 한문학자에 의해 지어졌는데, 이들은 중국사의 詞客과 자못 비슷하다. 경기체가의 '3·3·4' 구식이 중국사의 구식 혹은 '4·6'구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문인은 경기체가를 읊었지만 노래로 부르지는 않았다. 즉, 경기체가는 서면형식만 있고 구두로 전파되지는 않은 것이다. 경기체가의 이러한 연원과 사회적 기능은 사와 유사한 특징이다.

사와 시조 관련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류근안(<조선전기 시가의 연행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52집, 2004.), 김진희(<시조 시형의 정립 과정에 대하여 -악곡과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19집, 2005.), 최한선(<한중 현대시와 시조체시 및 가사체시>, 《동아인문학》 33집, 2015.) 등이 있다. 시조는 고려 중엽에서 고려말기에 생겨난 시가형식이다. 시조는 형식상 경기체가와 비슷하지만 대개 고정된 격식이 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매 장 2구 '3장 6구' 형식이고, 매장 15자 이내, 총 45자 내외이다. 이같은 시조 형식은 조 시기로 가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 시조와 중국 송사와의 유사성은 표현수법과 神韻風味에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형식상 고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음악과 배합되어 가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시조와 사의 관계 연구에서 주의할 점은 송사의 고려 전래 시기와 관련한 문제이다. 고려 시조가 탄생했을 때, 시기적으로 중국의 사는 극성한 이후였다. 고려사와 조선사의 창작 시기와 중국사의 한국 전래 시기를 미루어 짐작하면, 고려 시조가 전 계층에 걸쳐 널리 전파된 것과 사의 한국 전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지만 고려 사인들은 자신이 직접 사를 창작해서 지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 발생한 시조의 창작과 유행에서 일부 영향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어서 중국에서 한국사문학 연구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1980년대 夏承燾 교수는 『域外词选』을 최초로 편찬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의 词作을 소개하면서, 한국사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제현의 작품만을 수록했다. 1990년대에 진행된 중국의 한국사문학 연구는 黄拔荆, 罗忼烈, 吴熊和, 谢桃坊 등이 있었다. 홍콩중문대학의 罗忼烈 교수는 고려사와 조선사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吴熊和 교수는 <高丽唐乐与北宋词曲>에서 《高丽史·乐志》를 중심으로 해서 당악과 북송 사곡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도 중국의 학자들은 『高丽史·乐志』를 중심으로 중국 고대 음악과 무용에 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사문학을 왕성하게 연구하는 대표학자로는 李承梅, 李宝龙, 杨焄, 王进明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요약해보면, 李宝龙의 《韩国高丽词文学研究》¹⁾는 고려 사단을 전반적으로 개괄하면서 金克己, 慧谏, 李承休, 闵思平, 郑誦, 李谷, 李九容, 元天锡, 李詹, 安鲁生, 成石璘, 崔执均, 陈义贵 등 다수의 고려 사인과 사작을 연구했다. 아울러 한중 사문학 비교 연구를 통해 주제, 격율, 심미, 풍격에서 드러나는 한중사의 차이 분석했다. 아울러 杨焄은 《域外汉籍传播与中韩词学交流》²⁾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단방향 연구를 지양하고 한중간 汉籍 문화교류의 시각에서 한국 문인들의 중국사에 대한 평론과 수용 문제, 한국사의 중국사의 영향 관계, 한국에서 중국사가 수용되고 전파되는 과정, 한국 역대 문인들의 평가를 정리 분석했다.

한국사를 비교문학적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는 李宝龙 (2009, 2010),³⁾ 杨焄(2010),⁴⁾ 王进明(2013, 2017, 2017)⁵⁾ 등의 논문이 있

- 1) 李宝龙, 《韩国高丽词文学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2) 杨焄, 《域外汉籍传播与中韩词学交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7.
- 3) 李宝龙, <朝鲜词文学发展论略>, 《东疆学刊》, 第2期, 2009; <韩国高丽词考论>, 《社会科学辑刊》, 第3期, 2010.
- 4) 杨焄, <汉籍东传与韩国槩括词的创作>, 《中山大学学报》, 第5期, 2010.
- 5) 王进明, <论乐与韩国词的渊源>, 《韩国研究论丛》, 第2期, 2013; <富有韩国特色的词论>, 《延边教育学院学报》, 第4期, 2017; <论朝鲜词文学不发达的成

다. 이외에 尹禧⁶⁾, 安向梅⁷⁾, 金度燃⁸⁾의 석사논문이 한국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중에서 钱锡生의 《论唐宋词在韩国的传播与接受》⁹⁾ 논문은 联章, 步韵, 效体 등 구체적인 특징을 통해 한국사에 나타난 중국사의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사문학 작가와 작품 연구는 주로 고려시대 이계현 사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衣若芬, 姚大勇, 李桃 등이 있다. 그러나 이계현을 제외한 기타 한국사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략 살펴보면 赵冕镐, 申光汉, 郑士龙, 申钦, 沈彦光 등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중국사인과 한국사인을 비교하고, 중국사인이 한국사인에 미친 영향, 한국사인에 대한 평가 등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여타 연구로는 한국 문인의 사체 인식, 한국 문헌 중 사 관련 기록, 한국의 사학 연구 동향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李承梅는 소 논문에서 词体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고찰했다. 그녀는 唐乐을 통해 처음 한국에 전파된 사를 한국 문인들은 음악성이 강조된 歌词文学으로 인식했고, 이러한 문체 인식은 한국에서 사문학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한국의 사 관련 문헌 자료 또는 한국 사학 연구를 정리한 글로는 秦惠民, 薛玉坤, 周茜 등의 논문이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한국 사문학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한국사문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직까지 원시 자료 발굴이 완성되지 않아 한국사문학에 대한 거시적 조감이 어

인>,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2017.

- 6) 尹禧, 《宋词在韩国的传播与接受》, 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 7) 安向梅, 《宋词与朝鲜前期词的比较》,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 8) 金度燃, 《论唐宋词在韩国的传播与接受》, 苏州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 9) 钱锡生, <唐宋词在韩国的传播与接受>, 《江海学刊》, 第3期, 2013.
- 10) 杨焄, <韩国词人的“东坡情绪”>, 《『中国社会科学报』》, 第B02版, 2013.6.21./陶然, <论欧阳修词与早期高丽词关系三议>, 《新国学》, 第1期 2015./杨焄, <韩国历代和东坡词论>, 《人文杂志》, 第11期, 2015./杨焄, <朝鲜历代拟朱熹词探微>, 《华东师范大学学报》, 第5期, 2010.

렵다는 것이다. 한국 문인들의 사 문체에 대한 모호한 인식으로 인해 다른 문체와 혼재되어 기록되었다. 때문에 문헌 원문에서 사체를 분별하고 수집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또한 발굴 정리 작업을 통해 찾아낸 사 자료는 사패에 따라 일일이 대조하고, 사율에 따라 표점과 교감을 통해 문장부호를 붙여 그 원형을 복원해야하기 때문에 발굴 정리 속도가 더디고 요원하기만 하다.

한국사 연구의 또 다른 과제는 학제간 연구이다. 사가 가진 종합 예술적 성격을 고려하면, 사의 전파와 수용은 문학 영역을 넘어 좀 더 폭넓은 각도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사문학의 가치를 여러 시각에서 재조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문학자, 중문학자, 국문학자, 한국음악학, 비교문학자들의 학제간 협업이 절실하다. 이 같은 학제간 협업 연구는 작품 원본, 판본 문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사학 연구의 전통적 연구방법과 인접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는 한국사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내실있는 한국사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문화사적 각도에서 한국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사 문화지형도 구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가 가진 학문적·문화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문학 연구는 아직 그 연구토대가 매우 미약하다. 각종 문헌 전수조사와 한국사 발굴 정리 작업은 한국 사문학 연구의 주요 토대가 될 것이다. 본고는 앞으로 그동안 축적된 한국과 중국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려, 조선, 구한말까지 창작된 한국 사문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주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축적된 역주자료는 한국 사문학의 발전 궤적과 문화지형을 그리는데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와 한국 사인에 대한 평가와 비평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사가 한국 한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문화사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와 조선 시대 한중 문인의 교류 과정에서는 시, 산문, 소설, 필담, 일기 등에 한국 詞人과 詞作에 대한 평가와 비평자료가 적지 않게

기록되었다. 중국의 사화집 《詞話叢編》에 실린 韓國詞 자료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학자 秦惠民은 2013년 발표한 논문 《韩国古代诗话中词论资料》에서 《韩国诗话丛编》, 《修正增补韩国诗话丛编》, 《诗家点灯》을 문헌 근거로 삼아 徐居正(1420~1488)의 《东人诗话》에 기록된 2条, 李晔光(1563~1628)의 《芝峰类说》에 기록된 29条, 佚名 《诗文清话》에 남은 31条, 南義采의 《龟磻诗话》에 기록된 34条, 李奎景의 《诗家点灯》에 기록된 13条 등 한국 시화 20종에 남아있는 사 관련 기록 총 157条를 수집 정리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문헌에 산재되어 있는 사 관련 문헌 기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공력을 요구되는 한국사 발굴·정리 작업은 한국사의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다년간 한중사문학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문헌자료의 수집·발굴·정리 및 표점·교감·주석·번역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펴낸 《韓國文集叢刊》과 류기수의 《全高麗朝鮮詞》(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9.)를 저본으로 하고, 여타 관련 자료를 두루 참고하여 한국한문학사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사인 권근과 권우 형제가 남긴 사작품 17수 역주를 통하여 학계에서 그들의 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한국사문학에서 그의 위상과 평가를 논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두 사람 사작품의 중심 내용은 조선이 건국해서 새로이 한성에 수도를 정한 뒤 그 웅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성을 곳곳을 유람하면서 산수 경물의 경치를 묘사하거나, 수도 한양을 구성하는 팔경의 풍경을 선별한 읍었으며, 수도 천도에 대한 감회가 담겨져 있다. <巫山一段雲> 詞調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이제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에 나타난 주제의식은 새로 개창한 왕조를 송축하기 위해 올린 것이 <무산일단운> 사패를 운영하여 ‘신도팔경’을 읍었다. 권근, 권우 형제는 이러한 사작을 통해서 수도 한양의 팔경을 통해 조선 왕조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라는 송축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찍이 1984년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김성환·조수익이 공역하여 《국역 陽村集》을 출간하였는데 제8권 詩안에 권근의 사작품이 번역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2010년에 진주소씨병사공과생원중중흥회에서 조수익이 《국역 매헌집(梅軒集)》을 번역하여 출간하였는데 제1권 詩안에 권우의 사작품이 번역되어 있었다. 김성환은 한문학과 교수이고, 조수익은 원로 한학자로 詞體라는 특수한 문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체가 있었다. 게다가 번역에 있어 詞牌와 小題의 개념을 몰라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하며, 문장과 구절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 부족하여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생경한 한자어를 풀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고, 한문투와 고어투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때문에 어색한 번역을 오늘날 현대적인 어투로 맞게 재번역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역자는 한문학자가 아닌 중문학자이고 세부전공이 사문학이다. 고려사인 권근과 권우 사작품 2調 17수 역주를 함에 있어 원전의 뜻을 살리면서도 한글세대가 읽어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난삽하지 않고 한문투와 고어투의 표현을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번역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서 두 형제의 사작품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사문학에서 그들의 위상과 평가를 논할 수 있는 기초학술자료로 제공하며, 또한 중국학자들에 게도 한국사문학 연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원문의 상편과 하편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 사용했고, 체제는 원문, 번역문 순으로 배열했고 주석은 각주로 처리했다. 주석은 생소한 중국 사파나 원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휘나 전고를 중심으로 달았음을 밝혀둔다.

II. 權近¹¹⁾의 詞 역주

<巫山一段雲>¹²⁾

新都八景¹³⁾, 次三峰鄭公道傳韻.

- 11) 권근(權近, 1352~1409) :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가원(可遠)·사숙(思叔), 호는 양촌(陽村),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367년(공민왕16) 성균시(成均試)를 거쳐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이 되고, 우왕(禑王) 때 예문관 응교(藝文館應敎)·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를 거쳐, 성균관 대사성·예의관서(禮儀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1389년에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서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권근이 상서(上書)하여 이승인의 무죄를 주장하였다는 죄로 우봉(牛峯)에 유배되었다. 그 뒤 영해(寧海)·흥해(興海) 등을 전전하여 유배되던 중, 1390년(공양왕2)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한때 청주 옥에 구금되기도 했다. 뒤에 다시 익주(益州)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어 충주에 우거(寓居)하던 중 조선왕조의 개국을 맞았다. 조선이 개국되자 1393년(태조2) 예문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대사성·중추원사(中樞院使) 등을 역임하고, 1396년 표진문제(表箋問題)가 일어나자 청하여 명나라에 들어가 두 나라의 관계를 호전시켰다. 성리학자이면서도 사장(詞章)을 중시해 경학과 문학을 아울러 연마했다. 이색(李穡)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문하에서 정몽주·김구용(金九容)·박상충(朴尙衷)·이승인(李崇仁)·정도전 등의 당대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정진해 고려말의 학풍을 일신하고, 이를 새 왕조의 유학계에 계승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저서로는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으로 대표된다. 이밖에 정도전의 척불문자(斥佛文字)인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에 주석을 더하기도 했다. 시문집으로 《양촌집(陽村集)》 40권을 남겼는데 이 안에 총 8수의 사작품이 들어 있다.
- 12) <巫山一段雲>: 사조(詞調) 또는 악부(樂部)의 이름이다. 본문의 시체(詩體)가 ‘무산일단운’의 체로 지은 것이라는 뜻이다. 이 사패 형식은 기본적으로 쌍조 44자, 전후단 각 4구 3평운체를 따른다. 전후단 제3구가 7언구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다 5언구로 되어 있다. 전후단 제1·2구는 대구(對句)를 이루는 것이 통례다. 이체현은 무산일단운조에 의해 소장팔경과 송도팔경 각 2편을 써서 이 땅의 사경사(寫景詞)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권근과 권우는 <무산일단운> 사조에 의해 각 2편을 써서 조선이 건국해서 새로이 한성을 수도로 정한 뒤 그 모습을 그리며 한성의 성대함을 묘사한 것이다. 이 땅의 寫景詞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조선시대의 <巫山一段雲>사조로 寫景詞가 여러 문사에 의해 지어졌다. 《詞譜六》
- 13) 新都八景: 신도(新都) 곧 지금의 서울인 한양(漢陽)의 팔경이다. ‘瀟湘八景’을

신도팔경(新都八景), 삼봉(三峯) 정공 도전(鄭公道傳)의 시운(詩韻)을 차한다.

[1원문](一) <巫山一段雲>畿甸山河

疊嶂¹⁴環畿甸, 長江帶國城. 美哉形勝自天成, 眞箇是玉京¹⁵. ◎ 道里均皆適, 原田沃可耕. 居民富庶樂昇平, 處處有歌聲.

[1역](1) 서울의 산하

겹겹의 산이 서울을 에워싸고, 긴 강이 도성을 두르고 있네. 아름답다 좋은 형세 절로 이루었으니, 진실로 왕의 도읍이라네.

사방 길은 고르게 모두 알맞고, 들밭은 기름져 농사지을 만하네. 백성이 넉넉하여 태평 즐기니, 곳곳에서 노랫소리 들리는구나.

[2원문](二) <巫山一段雲>都城宮苑

天作鴻都壯, 雲橫雉堞¹⁶開. 觚稜金碧鬱崔嵬¹⁷, 劍佩此徘徊. ◎ 上苑¹⁸

토대로 형성된 八景 文化는 조선조 문인들의 문예의 전범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을 팔경으로 포착한 八景詩詞가 대표적이다. 이는 사대부 개인이 시적인 차원에서 팔경시사를 창작한 것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권근은 정도전이 주창한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적으로 한양을 수도로 삼는 것에 확신을 주기 위해 ‘신도팔경’ 사를 송축한 것이다.

- 14) 疊嶂: 첩첩이 둘러쌓인 산, 험한 산세를 말한다.
- 15) 玉京: 백옥경(白玉京)으로,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천제(天帝)가 사는 곳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제왕의 도성을 가리킨다.
- 16) 雉堞: 성 위에 축조한 작은 담장으로 그 위에 화살을 쏘는 구멍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장(女牆)으로 불렀다. 몸을 은폐하기 위해 성 위에 낮게 쌓은 성가퀴를 말한다.
- 17) 崔嵬: 우뚝 솟아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본래 산이 높고 험한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궁궐이 높고 큰 것을 뜻한다. 《이아(爾雅)》<석산(釋山)>에 “석산이 흙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을 최외(崔嵬)라고 하고, 토산이 바위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을 저(硎)라고 한다.(石戴土謂之崔嵬, 土戴石爲硎)”라는 말이 나온다.
- 18) 上苑: 한 무제(漢武帝) 때 천자의 봄가을 사냥놀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三春樂, 深宮萬壽杯. 君王勤政坐朝回, 花影轉樓臺.

[2㉮](2) 도성과 궁중 정원

하늘이 부여한 도읍은 웅장한데, 구름이 비껴있는 듯 성가퀴가 이어져 있네. 단청한 전각 지붕 웅장도 한데, 관원들이 칼을 차고 오가며 수비하네.

임금의 사냥터는 봄날 내내 즐거우니, 깊은 궁에서 만수 축배 올린다. 임금이 부지런히 다스려서 왕위가 제자리로 돌아오니, 꽃그림자도 누대를 맴돈다네.

[3원문](三) <巫山一段雲>列署星拱

弦直長街闊, 星環列署分. 天門¹⁹冠蓋藹如雲, 濟濟佐明君. ◎ 庶政皆凝績, 英才惣出群. 籠街²⁰喝道遞相聞, 退食²¹正紛紛.

[3㉮](3) 여러 관서가 별처럼 북극성을 향하다.

활줄 같은 곧은 거리 넓기도 한데, 별처럼 여러 관청 나뉘져 있다. 천문에 구름같이 모여든 관개, 훌륭한 선비들 밝은 임금 보좌하네.

다스리는 것마다 모두 이루어지고, 인재도 많이 나타난다네. 행차 소리가 길에 가득한데, 관리들의 퇴근 때라 분주하다네.

[4원문](四) <巫山一段雲>諸坊幕布

새와 짐승을 기르는 숲으로 상원(上苑), 또는 금림(禁林)이라고도 한다.

19) 天門: 하늘의 아홉 겹으로 된 관문을 가리킨다. 간혹 천제(天帝)나 신선이 머무는 곳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 《초사(楚辭)》<초혼(招魂)>에 “호표(虎豹)가 구중의 천문(天門)을 지켜 하계(下界)에서 오는 자를 저지한다.”라고 하였다.

20) 籠街: 승여(乘輿)의 의위(儀衛)가 성(盛)한 모양을 가리킨다. 《당서(唐書)》온조전(溫造傳)에 보면, “법리(法吏)가 방자하게 되면 법(法)이 무너지는데, 원화(元和)·장경(長慶) 때에는 중승(中丞)의 벽제(碧蹄)가 반 방(坊)도 못되던 것이 지금은 양 방이 되어 농가(籠街)라고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21) 退食: 조정에서 물러나와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관리가 관청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詩經·召南·羔羊》

新邑天開府, 諸坊局布碁. 千門萬戶正參差²²⁾, 冠蓋²³⁾日追隨. ◎ 市肆²⁴⁾家家富, 園亭²⁵⁾處處奇. 遠聞歌吹月明時, 適際大平期.

[4문](4) 여러 동네가 바둑판 형세다.

새 도읍은 하늘이 부여한 곳으로, 펼쳐진 여러 동네는 바둑판 같다네. 많은 집들은 들쭉날쭉한데, 고관대작들의 수레는 날마다 이어지네.

저자 가게 집마다 풍성히 살고, 뜰 안의 정자는 기이한 모양이네. 달 밝은 때 노랫소리 들리어 오니, 태평한 시기를 때마침 만났다네.

[5원문](五) <巫山一段雲>東門教場²⁶⁾

五校²⁷⁾容儀壯, 三軍²⁸⁾號令行. 東門鉦鼓響鏗轟, 萬騎耀戈兵. ◎ 日照明金匣, 風生動畫旌. 獻禽奏凱²⁹⁾象功成, 四域振雄聲.

[5문](5) 동문의 군사 훈련장

오교는 용의가 웅장도 하고, 삼군은 호령 따라 행동을 한다. 동문에 징과 북이 울려 퍼지니, 만 기병의 병기가 번쩍거린다.

칼집엔 햇살이 비취서 밝고, 깃발은 바람에 펄럭인다. 짐승을 잡아서 개

22) 參差: 들쭉날쭉한 모양을 말한다. 《시경》<관저(關雎)>에 “들쭉날쭉한 마름나물을 좌우로 취하여 가리도다. 요조한 숙녀를 거문고와 비파로 친애하도다.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라고 하였다.

23) 冠蓋: 관원의 관모(冠帽)와 수레덮개로, 전하여 사신의 행차를 가리킨다.

24) 市肆: 장거리의 가게, 시전(市塵), 저자거리(시장)를 가리킨다.

25) 園亭: 정원(庭園)에 만든 정자(亭子)를 가리킨다.

26) 教場: 군사 훈련을 하는 장소 또는 군사 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이다.

27) 五校: 오위(五衛) 곧 의흥위(義興衛)·용양위(龍驤衛)·호분위(虎賁衛)·충좌위(忠佐衛)·충무위(忠武衛)를 이른다. ‘교’는 군영(軍營)의 뜻이다.

28) 三軍: 여말 선초(麗末鮮初)의 중(中)·좌(左)·우(右)의 세 군영. 이를 통제하는 기관은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였다.

29) 奏凱: 출병하다. 개선힌하다는 뜻이다.

선을 아뢰니, 씩씩한 소리가 울리 퍼지네.

[6원문](六) <巫山一段雲>西江漕泊

南海恬風浪, 西江簇畫船. 烏檣³⁰櫛立³¹蔽雲天, 委積³²與山連. ◎ 紅腐³³千倉粟³⁴, 靑生萬戶煙. 公私富足各安然, 王業永綿綿³⁵.

[6역](6) 서강에 정박하다

남해에 물결이 잔잔해지니, 서강에 배들이 몰려들었다. 돛대가 빗살처럼 촘촘히 섰고, 물화가 산같이 쌓여 있다.

창고마다 곡식이 발갛게 썩고, 집마다 연기가 파랗게 난다. 온 나라 풍족해서 편케 지내니, 왕업이 길이 먼먼하리라.

[7원문](七) <巫山一段雲>南渡行人

雜遝爭官道, 繁華近國門. 街亭日日擁高軒³⁶, 迎送倒芳樽³⁷. ◎ 野路連

30) 烏檣: 풍향을 살피기 위해 꼭대기에 까마귀를 조각해 놓은 돛대를 말한다. 두보(杜甫)의 <견민(遣悶)>에 “성안의 해는 까마귀 새긴 돛대를 피한다.(城日避烏檣)”라는 구절이 있다.

31) 櫛立: 빗살처럼 뻥뻥이 들어선 모습을 가리킨다.

32) 委積: 쌀을 저축했다가 흉년에 보태어 먹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곡식, 땀나무, 풀 등 각종 세입 가운데 1년간의 국용(國用)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축해 두었다가 흉민(恤民), 양로(養老), 빈객(賓客), 여행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소규모의 것을 위(委)라고 하고, 좀 더 대규모의 것을 자(積)라고 하였다. 유인(遺人)은 이것을 관장하던 관원이다. 《周禮·地官司徒·遺人》

33) 紅腐: 양곡(糧穀)이 창고에 쌓인 지 오래되어 벌겋게 부패한다는 뜻으로, 전하여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한 무제(漢武帝) 원수(元狩) 연간에 곡식과 돈이 워낙 풍부해져서, 태창(太倉)의 곡식은 붉게 변질되어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도성(都城) 안의 돈은 폐미가 썩어버려서 돈의 수를 셀 수가 없게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漢書·賈捐之傳》

34) 倉粟: 관아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가리킨다.

35) 綿綿: 《詩經》<면(綿)>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오이들이여.(縣縣瓜瓞)”라고 하여 주(周)나라의 국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짐을 은유한 말이다.

36) 高軒: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이다. 당나라 이하(李賀)가 소년 시절 당대에 문

江岸，汀沙帶水痕。往來皆向此中奔，誰識濟川恩。

[7回](7) 남쪽으로 강건너 가는 행인

관도에 분잡하게 오고가는데, 도성문 근처부터 번잡해지네. 가정에 날마다 초헌 옹위하여, 맛고 보내며 술병을 기울인다.

들길은 강 언덕에 연하여 있고, 물가 모래는 물 자국을 떠었다. 오가는 자 모두가 여기를 지나지만, 냇물 건너게 한 언덕 그 누가 알랴!

[8원문](八) <巫山一段雲>北郊牧馬

豐草長郊外，清川斷岸邊。龍媒³⁸萬匹競騰騫，藹藹³⁹五花⁴⁰連。走坂蹄生電，嘶風鬣⁴¹舞煙。無邪一念正超前，思欲獻駒篇⁴²。

- 명이 높던 한유와 황보식의 방문을 받고 지은 <고軒과(高軒過)>라는 시가 있다.
- 37) 芳樽: 향기나는 좋은 술을 말한다. 두보의 <곡강배정팔장남사음(曲江陪鄭八丈南史飲)> 시에 “백발이 봄놀이에 안 맞는 걸 스스로 알건만, 좋은 술 다 마시며 좋은 경치를 생각하노라.(自知白髮非春事，且盡芳樽戀物華)”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38) 龍媒: 아주 좋은말, 준마(駿馬)를 가리킨다. 《한서(漢書)》<예악지(禮樂志)>의 “천마가 오니 용마가 나오게 될 매개이다.(天馬徠，龍之媒)”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 39) 藹藹: 변화와 새로운 표현이 많음을 뜻한다. 《시경》<대아(大雅) 권아(卷阿)>에 “봉황이 훨훨 날아, 날개깃을 탁탁 치며, 앞을 자리에 앉는도다. 왕에게는 길사가 많으니, 군자가 부리는 지라, 천자께 사랑을 받는도다.(鳳凰于飛，翾翾其羽。亦集爰止，藹藹王多吉士。維君子使，媚于天子。)”라고 되어 있다.
- 40) 五花: 푸르고 흰 반점이 있는 오화마(五花馬)를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고도호충마행(高都護聽馬行)> 시에 “오색이 흩어져 구름 지어 온몸에 가득하니, 만리를 달리며 비로소 한혈마를 보겠도다.(五色散作雲滿身，萬里方看汗血馬)”라고 하였다.
- 41) 鬣: 말갈기를 말한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예전에 공자께서 ‘내가 보건대, 봉분을 당처럼 쌓은 것이 있고, 제방처럼 쌓은 것이 있으며, 하나라 때의 가옥처럼 쌓은 것이 있고, 도끼처럼 쌓은 것이 있다. 나는 도끼처럼 쌓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세속에서 이른바 ‘말갈기 봉분’이라고 하는 것이다.(昔者夫子言之曰，吾見封之若堂者矣，見若坊者矣，見若覆夏屋者矣，見若斧者矣。從若斧者焉，馬鬣封之謂也。)”라고 하였다.
- 42) 駒篇: 《시경(詩經)》 노송(魯頌)의 편명이다. 경야(垌野)에서 먹이는 말들이

[8阨](8) 북쪽 교외에서 말을 치다

풀 우거진 긴 들 밖이요, 맑은 시내 깎아지른 언덕가라네. 수없는 준마들이 다투어 뛰니, 아득한 말의 모습이 잊달았네.

언덕에 달리는 굽 번개 치는 듯, 바람에 우는 갈기 연기에 춤춘다. 앞으로 뛰어넘는 오직 한 마음, <경편(駟篇)>을 바치려는 생각뿐이라네.

Ⅲ. 權遇⁴³⁾의 詞 연구

<巫山一段雲>

新都八景⁴⁴⁾. 次三峯鄭先生⁴⁵⁾道傳韻. 自註. 先生首列八景之目. 各賦巫

크고 살찐 것을 노래한 것이다.

- 43) 權遇: 생졸년은 1363~1419 이고,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중려(仲慮)·여보(虞甫), 호는 매헌(梅軒)이다. 형 권근의 동생이다. 어려서는 형인 권근(權近)에게서 학문을 배우다가, 자라서는 정몽주(鄭夢周)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그는 1377년(우왕 3) 진사가 되고, 1385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문첩녹사(文牒錄事)가 되고, 이어 성균박사·밀직당(密直堂)·장흥고사(長興庫使)·성균직강(成均直講)·사간원좌헌납(司諫院左獻納)·예문응교(藝文應教) 등 여러 직책 역임했다. 그는 글씨를 잘 썼으며 작품으로 그의 형 권근의 신도비(神道碑)가 남아 있다. 또한 시문에 능했으며 성리학과 《주역》에 밝았다. 1415년 원주목사를 거쳐 예문관제학이 되었으며, 1418년 충녕대군(忠寧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자 세자빈객이 되었다. 관직에 재임하는 동안 두 번이나 시관(試官)이 되어 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로는 《매헌집(梅軒集)》 6권이 있고, 총 9수의 사작품이 있다.
- 44) 新都八景: ‘신도팔경(新都八景)’이란 시를 지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눈에 비친 새 도성은 새 기운이 넘친다. 여덟 편의 시는 기전산하(畿甸山河·경기를 중심으로 한 산하의 형세), 도성궁원(都城宮苑·성곽과 궁궐의 모습), 열서성공(列署星拱·여러 관아들이 정연히 배열된 모습), 제방기포(諸坊碁布·여덟집들이 바둑판처럼 자리잡은 모습), 그리고 동서남북의 대문 밖 풍경을 차례로 노래하고 있다.
- 45) 三峯鄭先生: 정도전(鄭道傳, 1342~1398)으로, 삼봉(三峯)은 호이다. 자는 중지(宗之), 본관은 봉화(奉化),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저서로 《삼봉집(三峯集)》이 있다. 1375년(우왕 1) 권신 이인임(李仁任)·경복흥(慶復興) 등의 친원매명 정책을 반대해 북원(北元)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로 권신 세력과 맞서다가 전

山一段雲體⁴⁶)。獨谷, 陽村皆效其體而賦之。

신도팔경, 삼봉 정도전 선생의 운에 차운하다. 선생이 먼저 팔경의 목록을 나열하고 각각 <무산일단운>체로 시를 지었다. 성석린(成石璘)과 권근(權近)이 모두 그 체를 본받아 시를 지었다.

[1원문](一) <巫山一段雲>畿甸⁴⁷)山河

四境邦畿遠。千年地理雄。山河設險出天工。建國此營功。◎虎踞龍蟠處。雞鳴狗吠⁴⁸)中。吾王修德慎初終。鴻業⁴⁹)永無窮。

[1原](1) 서울의 산하

라도 나주목 회진현(會津縣) 관하의 거평부곡(居平部曲)에 유배되었다. 1384년 전교부령(典校副令)으로서 성절사 정몽주의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후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관대사성으로 승진하였다. 1388년 6월에 위화도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실권을 장악하자 밀직부사로 승진해 조준(趙浚) 등과 함께 전제개혁안을 적극 건의하고, 조민수(曹敏修) 등 구세력을 제거해 조선 건국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정몽주가 이방원(李芳遠) 일파에 의해 격살되자 유배에서 풀려 나와, 같은 해 7월에 조준·남은(南閔) 등 50여 명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 개창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1398년 권근(權近)과 더불어 성균관제도가 되어 4품 이하의 유사(儒士)들에게 경사(經史)를 강습시키고, 여름에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저술해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는 또 많은 악사(樂詞)를 지어 <문덕곡>·<몽금척>·<수보곡>·<납씨곡(納氏曲)>·<정동방곡(靖東方曲)> 등을 남겼으며, 회진현의 유배시절과 삼각산·부평·김포·영주 등지에서 방랑시절에 쓴 수많은 시문들이 지금 《삼봉집》에 전해지고 있다.

46) 巫山一段雲體: 본고는 조선 초기에 수도 한양을 소재로 한 권근과 권우가 지은 차운사를 중심으로 그 성격과 특징을 재검토했던 것이다. 그들의 차운사가 <巫山一段雲> 詞調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이제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47) 畿甸: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 구역을 포괄한 지역을 말한다.

48) 雞鳴狗吠: 여기서는 인덕(仁德)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공손추상(公孫丑上)>에 “닭 울음과 개 짊는 소리가 서로 들려 사방 경계에 이르고 있다.(雞鳴狗吠, 相聞而達乎四境)”라고 되어있다.

49) 鴻業: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업을 가리킨다.

서울의 사방이 머니, 천년의 지리가 웅장하네. 산하의 험지는 하늘이 주신 공교로움에서 나왔으니,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기가 공을 경영하네.

범이 웅크리고 용이 서려 있는 곳이요, 닭이 울고 개가 짖는 한복판이지. 우리 군주는 덕을 닦고 처음과 끝을 삼가시니 커다란 공업 영원히 끝이 없으리.

[2원문](二) <巫山一段雲>都城宮苑

翼翼⁵⁰都城壯。崑崙象魏⁵¹尊。五雲⁵²佳氣正氤氳。凝作大平痕。◎ 劍佩⁵³趨丹闕。旌旗映紫門⁵⁴。天顏咫尺賜溫言。稽首謝鴻恩⁵⁵。

[2역](2) 도성과 궁원

웅장하게 자리한 도성, 높다랗게 우뚝 솟은 상위. 오색구름의 아름다운 기운 정말 자욱하여, 엉기어 태평성대의 흔적이 되었네.

칼 차고 붉은 칠한 대궐로 내달려, 깃발이 붉은 대궐문에 어리었네. 군주가 가까이 계셔 온화한 말씀 내리시니, 머리를 조아리고 커다란 성문에 사례하네.

50) 翼翼: 사방의 표준이라는 뜻이다. 《詩經》<은무(殷武)>에 “상나라 도읍이 잘 정돈되어 있으니 사방의 표준이로다.(商邑翼翼, 四方之極)”라고 하였다.

51) 象魏: 고대 중국에서 궁궐 문 밖에 마주 보게 세운 한 쌍의 건축물로 여기에 국가의 교령(敎令)을 현시(顯示)하였다. 법률이나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52) 五雲: 오색구름으로 본래 신선이 머무는 곳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오색구름으로 왕의 기운을 상징하기에, 오운이 펼쳐진 곳이 도성이라고 한 것이다.

53) 劍佩: 검과 패옥을 말한다. 당(唐)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야숙강포문원팔개관인기차십(野宿江浦聞元八改官因寄此什)에 “검패를 차고 새벽에 쌍봉 대궐에 달려가고 안개 낀 물가에서 밤에 한 어선에 묵노라.(劍珮曉趨雙鳳闕, 烟波夜宿一漁船)”라고 하였다.

54) 紫門: 궁전(宮殿)을 둘러싼 자성(紫城)에 설치된 문(門)을 말한다. 대개 신하들 끼리 나라의 일을 의논할 때 이곳에 모였다.

55) 鴻恩: 넓고 큰 은혜. 대은(大恩) 임금이 신하와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3원문](三) <巫山一段雲>列署星拱

天近金宮⁵⁶)邃。星排粉署⁵⁷)多。烏臺鳳閣⁵⁸)最清華。相望鬱嵯峨⁵⁹)。◎
夜直消銀燭。晨趨動玉珂⁶⁰)。丹青王化德無瑕。也合沐恩波。

[3原](3) 여러 별들이 북극성에 모이다

하늘이 깊은 대궐과 가까워, 별은 대부분 상서성 배열되네. 오대와 봉각이 가장 청화한 직책이니, 서로 바라보매 뻥뻥하게 우뚝 솟았네.

숙직하며 은촛불 사그라들고, 새벽되자 달리며 옥가를 흔드네. 임금의 교화 빛내는 덕 흠 잡을 데 없고, 은혜로운 물결에 흡족히 목욕하네.

[4원문](四) <巫山一段雲>諸坊基布

56) 金宮: 본디 금은으로 꾸민 궁으로 신선이 거처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거처하는 대궐을 가리킨다.

57) 粉署: 하얗게 벽을 칠한 관청이라는 말로, 상서성(尙書省)의 별칭으로 쓰이는데, 후한(後漢)의 상서령(尙書令) 순욱(荀彧)이 머문 자리에는 사흘 동안이나 향내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고사가 있다. <藝文類聚·香鑪>

58) 烏臺鳳閣: 사헌부와 사간원을 가리킨다. 송나라의 증공량(曾公亮)은 가우(嘉祐) 연간부터 회녕(熙寧) 연간까지 중서성(中書省)에 재직하며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의 권세가 워낙 대단하여 간관들조차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이복규(李復圭)가 “늙은 봉황새 연못가에서 웅크린 채 떠나지 않고, 굶주린 까마귀는 어사대(御史臺) 위에서 입 다문 채 울지 않네. (老鳳池邊蹲不去 飢烏臺上噤無聲)”라는 시를 지어 기롱하자, 증공량은 어쩔 수 없이 관직을 사양하였다. <三朝名臣言行錄 卷6> 늙은 봉황새는 늙은 재상을, 굶주린 까마귀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사대의 관리를 가리키는바, 중서성이 봉황지(鳳凰池) 옆에 있어 봉각(鳳閣)이라 칭하고 어사대를 오대(烏臺)라 칭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여 조롱한 것이다. 한편 한(漢)나라 어사부(御史府)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잣나무 위에 항상 수천 마리의 들까마귀가 모여 와 앉아 떠들어대다가 날아가곤 하였으므로 이를 조석오(朝夕烏)라 하였다 하는데, 사헌부를 오부(烏府) 혹은 오대(烏臺)라 하였다. <漢書·朱博傳>

59) 嵯峨: 들쭉날쭉 뒤섞여 있는 모습을 말한다. 여기서는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뜻한다.

60) 玉珂: 5품(品) 이상의 관원이 말(馬)에 다는 옥 장식이다. 참고로 두보(杜甫)의 시에 “不寢聽金鑰, 因風想玉珂”라는 구절이 있다. <杜少陵詩集·春宿左省>

錯落閭閻⁶¹⁾密。縱橫道路分。千車萬馬自成羣。來往互紛紛。◎ 市賈日中聚。街鍾風裏聞。繁華一代正修文。城闕藹⁶²⁾祥雲⁶³⁾。

[4㉮](4) 여러 방이 바둑판처럼 포진되다

빹빹한 여염집을 놓아두고, 가로세로 도로로 구분 지었네. 천 대의 수레만 마리 말이 절로 무리 이루고, 서로 분분하게 왕래하네.

한낮에 저자거리 모여들고, 대로의 종소리는 바람결에 들리네. 당시 변화한 일대는 바야흐로 문장을 다듬고, 대궐엔 상서로운 구름 자욱하네.

[5원문](五) <巫山一段雲>東門教場

地勢平如掌。軍容迅若雷。鼓行金止幾番回。萬騎共徘徊。◎ 善陣精明術。摧鋒勇決才。能令敵國自降來。預養豈徒哉。

[5㉮](5) 동문의 교련장

손바닥처럼 평탄한 지세에, 우레처럼 신속한 군진의 모습. 복치면 전진하고 징치면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으나, 만 명의 기마부대 함께 배회하네.

진을 잘 치고 용병술에 정통하니, 적의 예봉 꺾을 용감한 재주라네. 적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항복해 올 수 있나니, 군사를 미리 길러두는 것이 어찌 헛수고랴!

[6원문](六) <巫山一段雲>西江漕舶

61) 閭閻: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을 가리킨다. 보를 다섯 줄로 놓아 두 간 통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62) 藹: 뭉개뭉개. 성대한 모양을 가리킨다. 주자(朱子)의 <소학제사(小學題辭)>에 “성대한 사단이 느끼는 바에 따라 나타난다.(藹然四端, 隨感而見)”라고 되어 있다.

63) 祥雲: 상서로운 구름과 해로, 높고 고결한 인품을 비유한다. 주희(朱熹)의 <명도선생찬(明道先生贊)>에 정호(程顥)의 인품을 형용하여 “상서로운 해와 구름이요 온화한 바람 단비로다.(瑞日祥雲 和風甘雨)”라고 하였다.

漕運⁶⁴)通千里。樓船累萬艘。長江水濶抱汀洲。潮至衆帆投。◎ 貢賦年年入。倉箱日日收。民膏國脉各充周。舞蹈答王休⁶⁵)。

[6(國)](6) 서강에 조운선을 정박하다

조운선으로 천리를 가나니, 누선이 수 만 척이네. 긴 강물은 드넓어 모래톱 꺾안고, 조수 밀려오자 못 배들 뜻을 펼치네.

조세야 해마다 들어오고, 창고와 상자는 날마다 거두어들이네. 백성의 고혈이자 나라의 혈맥을 각각 두루 충만하니, 춤추며 임금님의 영광에 답하네.

[7(원문)](七) <巫山一段雲>南渡行人

遙望迢迢⁶⁶)路。橫流脉脉⁶⁷)津。南來北去幾千人。絡繹日相臻。◎ 風定舟行穩。煙開煙開水氣新新。濟川⁶⁸)亭上送迎頻。爛熳設華茵。

64) 漕運: 북관(北關)을 운행하는 조운선(漕運船)을 말한다.

65) 答王休: 왕에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왕의 아름다운 덕을 칭송한다는 뜻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강한(江漢)에 “호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어, 왕의 아름다운 명을 답하여 칭송해서, 소공의 종묘의 그릇을 이루니, 천자께서 만수무강을 누리소서.(虎拜稽首, 對揚王休, 作召公考, 天子萬壽)”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6) 迢迢: 고향 그리는 마음에 고향 쪽을 바라보며 서성거린다는 말이다. 양(梁)나라 소통(蕭統)의 《소명태자집(昭明太子集)》권1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에 “우뚝 솟은 산 위의 흑백나무요, 아스라이 멀리 떠나온 나그네로다. 떠나온 나그네 갈 길이 아득하니, 고향이 날로 멀어지는구나. 멀고 멀어 볼 수가 없으니, 멀리 바라보며 눈물 줄줄 흘리누나. 줄줄 흘리며 홀로 서성거리니, 긴 길이 아득히 이어져 있네. 오랑캐 말은 북풍을 좋아하고 월나라 제비는 해를 보고 기뻐하네. 이러한 고향 그리는 마음에 험싸여 깊은 근심 그치지 않아라.(亭亭山上栢, 悠悠遠行客. 行客行路遙, 故鄉日迢迢. 迢迢不可見, 長望涕如霰. 如霰獨留連, 長路邈綿綿. 胡馬愛北風, 越燕見日喜. 緬此望鄉情, 沈憂不能止.)”라고 한데서 온 말이다.

67) 脉脉: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 만나서 이야기해 보지도 못하는 한스러움을 뜻한다. 강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려(端麗)한 미인을 만나지 못하는 내용의 “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라는 고시(古詩)에서 유래한 것이다.

68) 濟川: 큰 냇물을 건넌다는 뜻인데, 전하여 재상을 의미한다. 은나라 고종이 부

[7㉮](7) 남도행인

아득히 머나먼 길을 멀리서 바라보니, 가로 흐르는 물결은 한스럽게 나루터로 흘러간다. 남쪽에서 오고 북쪽으로 간 이 얼마나 많았단고? 연이어진 해는 서로 이르렀네.

바람이 진정되니 배 움직임은 느려지고, 물안개 피어나고 물 기운은 새롭다 새롭구나. 큰넷물 건널 때 정자위에서 사람을 자주 맞이하고 보내고, 돛자리 깔고 화려하게 주연을 베풀었네.

[8월문](八) <巫山一段雲>北郊牧馬

野濶青煙羃。春深碧草齊。奔騰陣馬⁶⁹自東西。飛電入輕蹄。◎ 渡水成羣飲。迎風向侶嘶。牧人⁷⁰終日逐長堤。蓑笠⁷¹雨淒淒。

[8㉮](8) 북교의 목마장

드넓은 광야에 푸른 연기 덮이고, 봄 깊어 푸른 풀잎 가지런하네. 동서로 이리저리 뛰어오르는 진마는, 번개 내리치듯 경쾌한 말 발굽 들이네.

물 건너 무리 이루어 물을 마시고, 바람 맞으며 말은 우는구나. 말 치는 사람 하루 종일 긴 제방 따라다니며, 처연히 비 내려 도롱이와 샷샷 쓰고 있네.

열(傳說)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일 큰 넷물을 건너려거든 그대를 사용하여 배와 노로 삼을 것이며, 만일 큰 가뭄이 들거든 그대를 사용하여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若濟巨川, 用汝, 作舟楫; 若歲大旱, 用汝, 作霖雨.)”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書經·說命上》

69) 陣馬: 풍장진마(風牆陣馬)의 준말로, 여기서는 기운이 세고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말을 말한다. 흔히 문장의 기세가 옹후(雄厚)함을 비유하기도 한다.

70) 牧人: 목동을 가리킨다. 본디 주(周)나라의 관명(官名)으로 목축(牧畜)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71) 蓑笠: 흔히 은거하는 사람을 뜻한다. 유종원(柳宗元)의 <강설(江雪)>시에 “모든 산에는 새들도 날지를 앓고, 오만 길에는 인적도 끊어졌는데, 외로운 배에 도롱이 샷샷 쓴 늙은이가, 홀로 차가운 강 눈 속에 낚시질을 하네.(千山鳥飛絕, 萬人行蹤滅. 孤舟蓑笠翁, 獨釣寒江雪.)”라는 구절이 있다.

[9원문] <菩薩蠻>⁷²⁾寄春亭

妙齡⁷³⁾才思何神速。新詩句句如珠玉。唱和幾多篇。皆堪衆口傳。◎ 敷榮春樹木。將見稠紅綠。擬欲一尊前⁷⁴⁾。吟餘共醉眠。

72) 菩薩蠻: 菩薩蠻: 《宋史·樂志》에는 “女弟子舞隊名”이 있다. 《杜陽雜編》에 ‘唐宣宗 大中년간 초에 女蠻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雙龍犀와 明霞錦을 바쳤다. 여만국에서 온 여인들은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금관을 썼으며 몸에는 瓔珞을 둘러 菩薩蠻隊라고 불렀다. 당시 가희와 악공들은 이에 《菩薩蠻》이라는 곡을 지었는데, 문인들도 이 곡에 맞추어 사를 자주 지었다.’라고 하였다. 《教坊記箋訂》에 “楊憲益이 주장하기를, 보살만이라는 이 세 글자는 驪蠻 또는 符詔蠻의 다른 해석이다. 이 사패는 고대 緬甸[미얀마] 노래로 開間, 天間에 중국에 전해져 들어왔으며 李白 역시 보살만이라는 작품을 지었다고 하였다. 또한 李拓之는 지금의 滇(전: 운남 지역) 緬(먼: 미얀마) 변방의 소수민족들은 여자를 小菩薩이라고 불렀으니 아마도 이 곳일 것이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敦煌曲의 《보살만》에서 ‘敦煌古往出神將[돈황은 예전에 神將(신장)이 났는데]’이라고 시작되는 한 首에서 ‘只恨隔蕃部, 情懇難申吐[蕃部(번부; 티베트)가 가로막고 있는 것 그저 안타까우나, 간절한 마음은 아뢰기 어렵구나]’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 代宗 시기 잇달아 涼, 甘, 肅, 瓜의 네 개 주를 잃고, 德宗 建中 2년 沙州가 吐蕃에 함락되기 전에 지은 것이다. 만약 宣宗시기에 이 곡조가 지어졌다면 代宗 시기에 가사가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欽定詞譜》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唐教坊曲의 악곡명이다. 李憲의 사명은 <子夜歌>이며 일명 <보살만>이라고도 한다. 후대인들이 溫庭筠의 사를 가지고 <重疊金>이라고 불렀다. 韓偓의 사명은 <花間意>, <梅花句>, <花溪碧>, <晚雲烘日>이라고 한다. 쌍조, 44자이다. 앞단락의 네 구절은 양측운, 양평운으로 24자이다. 뒤의 단락 네 구절은 양측운, 양평운으로 20자이다. 《宋史·樂誌》에는 “中呂宮”에 포함되어 있다. 《清真集》의 주석에는 “正平調”라고 되어있다. 龍榆生은 “이 곡조의 격렬하고 빠른 현악기 연주 부분은 淒清怨慕(처량하고 쓸쓸하며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정취가 있다.”라고 하였다. 《聲調之學》

73) 妙齡: 묘년(妙年)과 같은 말로 20세 전후의 젊고 꽃다운 나이를 뜻한다.

74) 尊前: 술잔, 술동이를 말한다. 원래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모진(毛晉: 명나라 사람)의 발문(跋文)에는 명나라 사람 고오방(顧梧芳)의 저서로 되어 있다. 소식(蘇軾)이 서주(徐州)에 있을 때, 전당(錢塘)에서 승(僧) 참요(參寥)가 찾아왔으므로, 소식이 한 기녀(妓女)로 하여금 장난삼아 참요에게 시(詩)를 요구하였다. 참요가 절구(絶句) 한 수를 불렀는데, 그 시에 “술동이 앞의 양전한 낭자가 많이 고맙지만, 그윽한 꿈 좋이 가져다 양왕이나 필지어다. 선심은 이미 진흙에 붙은 버들개지가 되어, 동 풍을 쫓아 위아래로 미쳐 날지 않는다오. (多謝尊前窈窕娘, 好將幽夢惱襄王, 禪心已作霑泥絮, 不逐東風上下狂.)”라고 되어 있다.

[9역] <보살만>(춘정에 부치다)

묘령에 재주가 어찌 신속한가, 새로운 시는 구구절절이 주옥같네. 얼마나 많은 화답하는 시편이, 모두 사람들에게 구전될 만하네.

무성하게 번성한 봄날의 나무는, 조밀하게 난 붉은 꽃과 푸른 잎을 보게 되리. 한 술동이 앞에서 시 읊고 난 나머지 함께 취하여 잠들고 싶네.

<참고문헌>

- 韓國古典翻譯院, 《韓國文集叢刊》正編(第1~350冊)
 嚴建文, 《詞牌釋例》, 浙江: 浙江文藝出版社, 1984.
 김성환·조수익, 《국역 陽村集》, 민족문화추진회, 1984.
 류기수, <中國과 韓國의 ‘巫山一段雲’詞 研究>, 《中國學研究》 제8집, 1993.
 류기수, <고려시대의 사인 및 사문학의 발전배경 고찰>, 《중국학 연구》 제29집, 2005년.
 류기수, 《歷代韓國詞總集》,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
 류기수, <韓國詞의 原資料에 관한 고찰>, 《중국학연구》 제37권, 2006.
 류기수, <韓國 歷代詞의 詞牌 運用에 관한 고찰>, 《중국연구》 제40권, 2007.
 류기수, <歷代韓國詞總集·補正記>, 《민족문화》 제39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류기수, <中國詞의 受用과 創作-새로 발견된 高麗·朝鮮詞를 中心으로>, 《중국학연구》 제65집, 2013.
 류기수, 《歷代韓國詞總集》,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9.
 류종목, <高麗 및 朝鮮 문단에 있어서의 中國 詞文學의 수용과 전개>, 《19차중국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7년.
 李丙疇 등, 《韓國漢文學史》, 서울, 반도출판사, 1991.

- 이승매, 《韩国 词文学 研究》, 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은주, <한국사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中國學研究》 제84집, 2016.
- 조수익, 《국역 매헌집(梅軒集)》, 진주소씨병사공과생원증증중회, 2010.
- 安向梅, 《宋词与朝鲜前期词的比较》,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 李寶龙, 《韩国古典词文学研究—以高丽朝为中心》,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2009.
- 李寶龙, <朝鲜词文学发展论略>, 《东疆学刊》, 第2期, 2009.
- 李寶龙, <李齐贤在朝鲜词史上的地位和影响>, 《辽宁学院学报(社会科学班)》, 第4期, 2009.
- 李寶龙, <韩国高丽词考论>, 《社会科学辑刊》, 第3期, 2010.
- 李寶龙, 《韩国高丽词文学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李承梅, <词集、词谱的传入与高丽、朝鲜文人对词体的接受>, 延边大学亚洲研究中心编《朝鲜—韩国文学与东亚》, 延边大学亚洲中心学术丛书, 第4辑, 延边大学出版社, 2009.
- 李剑亮, <论韩国词对唐宋词的受容—以历代韩国词总集为文献依据>, 《词学》, 第1期, 2012.
- 龙婷, <苏轼词对朝鲜李衡祥词的创作影响>, 《现代语文(学术综合版)》, 第3期, 2013.
- 钱锡生, <论唐宋词在韩国的传播与接受>, 《江海学刊》, 第3期, 2013.
- 陶然, <论欧阳修词与早期高丽词关系三议>, 《新国学》, 第1期, 2015.
- 王进明, <论乐与韩国词的渊源>, 《韩国研究论丛》 第2期, 2013.
- 王进明, 《朝鲜词文学传播与创作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2014.
- 王进明, 《朝鲜词文学传播与创作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17.
- 王进明, <富有韩国特色的词论>, 《延边教育学院学报》 第4期, 2017.
- 王进明, <论朝鲜词文学不发达的成因>,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2017.
- 杨焄, <朝鲜历代拟朱熹词探微>,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5期, 2010.

- 杨焄, <汉籍东传与韩国槩括词的创作>, 《中山大学学报》 第5期, 2010.
杨焄, <韩国词人的“东坡情绪”>, 《中国社会科学报》, 2013,6,21.
杨焄, <韩国历代和东坡词论>, 《人文杂志》, 第11期, 2015.
杨焄, 《城外汉籍传播与中韩词学交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7.
尹禧, 《宋词在韩国的传播与接受》, 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Abstract >

In this treatise, Kwon Keun'(1352~1409)s and Kwon Wu(1363~1419)'s Goryeo Dynasty poet whose Ci Poetry whole 17 works are Translation and Annotations. Kwon Keun's have 8 works and Kwon Wu have 9 works. Their Goryeo Ci Poetry translations were Chosen for the process in this treatise. one is 《A Korean Ci poetry of the Collection》written by Professor Ryu Gi Su., the other is the collections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Classics. My translation has been carried out with scrutinization into the present results and defects of the two books. This paper is on the review of 'Sidopalgyeong' Ci Poetry written by Kwon Keun'(1352~1409)s and Kwon Wu(1363~1419)'s. His 'Sidopalgyeong' Ci Poetry is mentioned with the drawing of the new capital, Hanyang in Joseon Dynasty. It is not directly affected by Sosangpalgyeong and Songdopalgyeong with Musanildanun, the tune of CiPai(詞牌) written by Lee Qi Xian. because its meter is different from Lee Qi Xian. Although it connected to palgyeongsi(the poems of the eight scenic views) in Goryeo Dynasty. His works is about new capital, Hanyang in Joseon Dynasty landscape, his lifetime so on. Their Ci poetry is described as the beautiful Hanyang's nature viewed while traveling. In addition, initiative and truth shown in their Ci Poetry can be said to have made meaningful progress

in the history of Ci's literature Goryeo Dynasty.

Key Words : 권근(Kwon Keun), 권우(Kwon Wu), 고려사(Goryeo Ci Poetry),
시도팔경(Sidopalgyeong), 한양(Hanyang), 풍경(Landscape)